논어 7편 술이 14장 · 원문·풀이

冉有曰：「夫子爲衛君乎？」子貢曰：「諾，吾將問之」。入曰：「伯夷叔齊，何人也？」曰：「古之賢人也。」曰：「怨乎？」曰：「求仁而得仁，又何怨？」出，曰：「夫子不爲也。」

독음 · 염유왈 부자위위군호 자공왈 낙 오장문지 입왈 백이숙제 하인야 왈 고지현인야 왈 원호 왈 구인이득인 우 하원 출 왈 부자불위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백이와 숙제는 인을 구해 인을 얻었으므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다. 자공은 그 답에서 공자가 위나라 임금의 처신을 지지하지 않음을 알아차렸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冉 가는 털 늘어질 염 염 / 有 있을 유 / 曰 가로 왈 / 夫 지아비 부 부

子 아들 자 / 爲 할 위 / 衛 막을 위 위 / 君 임금 군

乎 어조사 호 / 貢 바칠 공 공 / 諾 대답할 낙 낙 / 吾 자기 오 오

將 장차 장 장 / 問 물을 문 문 / 之 갈 지 / 入 들 입 입

伯 맏 백 백 / 夷 동쪽 오랑캐 이 이 / 叔 아재비 숙 숙 / 齊 가지런할 제 제

何 어찌 하 하 / 人 사람 인 / 也 어조사 야 / 古 옛 고 고

賢 어질 현 현 / 怨 원망할 원 원 / 求 찾을 구 구 / 仁 어질 인 인

而 말이을 이 / 得 얻을 득 득 / 又 또 우 우 / 出 날 출 출

不 아닐 불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